
**2018년 일본 리빙랩 연구교류회 참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 보고서**
2018.11.26-28

2018년 12월

**성지은(STEPI)
서정주(EISAI)**

□ 일본 리빙랩 활동 현황 및 네트워크 관련 인터뷰

○ 방문일시: 2018년11월26일 월요일 15시

○ 마에다 노부히로(Nobuhiro Maeda):

-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객원연구원
- 주식회사닛세이기초연구소(NLI Research Institute)
- 생활연구부 고령학추진실, 주임연구원, 고령사회 엑스퍼트

○ 마에다 노부히로는 현재 일본에서 리빙랩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있는 아키야마 교수의 카마쿠라 리빙랩의 주요 관련자이면서 일본 리빙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그가 근무하고 있는 닛세이기초연구소를 방문해서 일본 리빙랩 네트워크 활동의 현황과 카마쿠라 리빙랩의 개요 그리고 일본-스웨덴과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1] 회의 후 마에다 노부히로 연구원과의 사진



※ 왼쪽부터 하라구치 나오코 (큐슈 경제연구원), 성지은 (STEPI), 마에다 노부히로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객원연구원), 서정주 (Eisai)

- 마에다 노무히로는 도쿄대 객원연구원으로 노년학과 연계,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리빙랩을 기획·연구하고 있다. 도쿄대는 2017년 4월 커뮤니티의 고령화 과제 해결에 대한 공동창출 거점이 되기 위해 고령사회코크리에이션(공창)센터(Co-Creation Center for Active Aging, 이하 고령사회공창센터, 센터장 아키야마)를 설립하였다.
- 고령사회공창센터에서는 리빙랩사업, 고령사회검정사업(보다 풍요로운 고령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식, 인생설계, 상품서비스 개발, 정책입안 등), 고령사회과제 해결형 연수사업(인재육성), 코크리에이션 포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1) 일본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현황

- 일본은 고령사회공창센터가 주축이 되어 2018년 4월 처음으로 일본 전국의 리빙랩을 리스트업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을 가졌다.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약 30여 곳의 리빙랩 활동이 확인되었고, 현재는 40곳 정도로 추정된다.
- 리빙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학-관-민이 협력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과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코크리에이션(공동창출)하는 마을만들기와 오픈이노베이션의 바로 주체가 생활자/유저/당사자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림 1] 일본 리빙랩 현황



[그림 2] 일본 리빙랩 주체 간 역할



2) 도쿄대 가마쿠라 리빙랩

[그림 3] 일본 가마쿠라 리빙랩 포스터



- 가마쿠라 리빙랩 활동은 2017년 1월 킥오프했다. 고령사회공창센터, 가마쿠라시, 기업, 지역의 마을회&NPO등 협력하는 구조이다. 가마쿠라시 내에서도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45.1%)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 목적

2017-18년도(2년간)에 A-C 세가지 타입의 코크리에이션 활동을 실시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리빙랩 메카니즘 및 사업구조 확립(일본판 리빙랩 모델 구축)

○ 사업 유형

1. A(주민과제)-코크리에이션 센터 주도(연구예산)

- 장수사회에 맞는 워크스타일과 주택/지역환경 개발

(1) 인생200세시대의 주택/워크 환경과 가구 (가구메이커: 이토키) : 제로에서 컨셉을 설계하여, 상품화 가능성 탐색 중

(2) 새틀라이트 오피스 가능성 (가구, 하우스, 통신사업자)

국내외 코워킹 스페이스 동향조사, 이동하는 오피스 등의 가마쿠라 인근 코워킹 스페이스 시찰, 의견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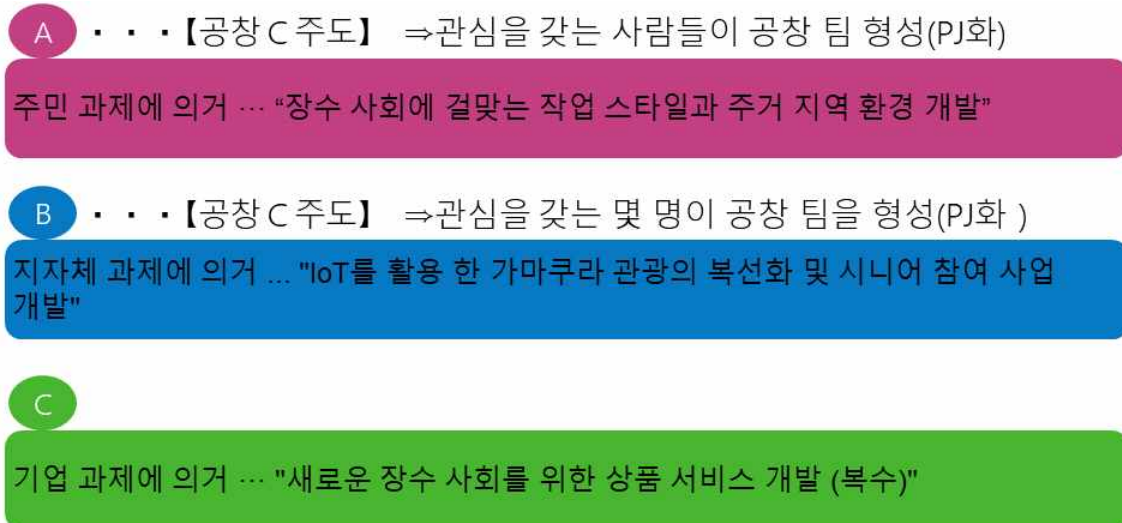
2. B(지자체과제)-코크리에이션 센터 주도(연구예산)

- IoT를 활용한 가마쿠라 관광 복선화와 시니어참여 사업개발
- 고도(오래된 도시)가마쿠라X테크놀로지
- 시니어 활약, 젊은 세대와 협동

3. C(기업과제)-법인회원 제안 활동(기업지원)

- 새로운 장수사회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 신형 모빌리티
- 건강한 인테리어
- 고령자를 위한 지면디자인 및 설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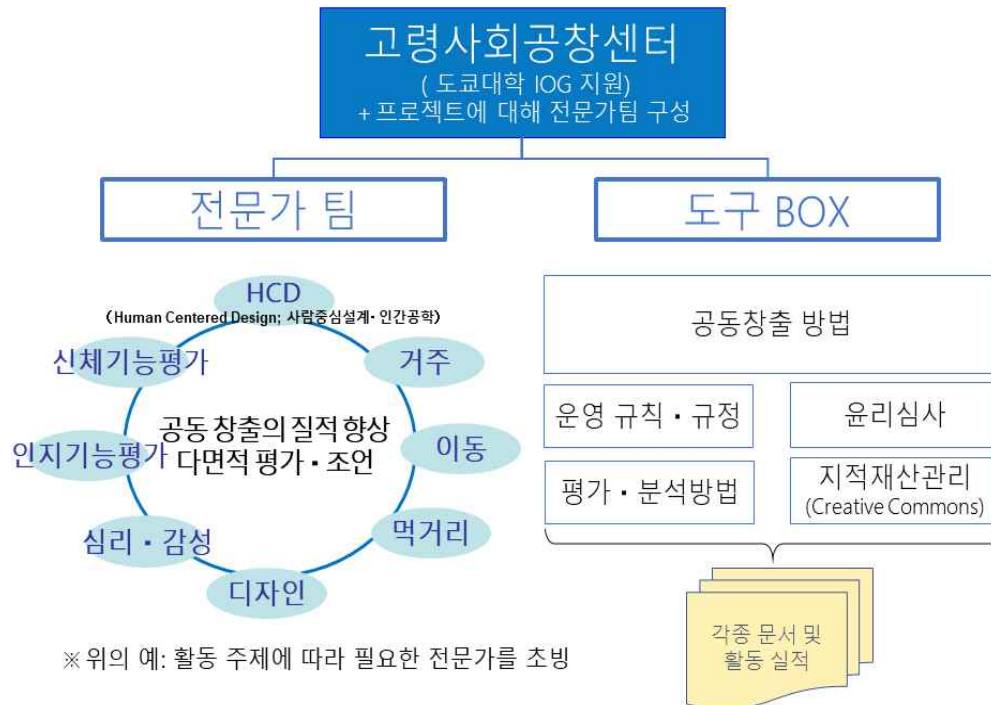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 리빙랩 추진 유형



-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팀과 툴박스가 구성되었다. 전문가팀은 코크리에이션 활동의 질적 향상과 다면적인 평가와 조언을 위해 HCD(Human Centered Design), 주거, 이동, 음식, 디자인, 심리정서, 인지기능평가, 신체기능평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 툴박스는 공동창출 방법으로 운영 룰과 규정, 윤리심사, 평가분석방법, 지적재산권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 2017년1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프닝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2천세대 약

5천여명의 주민 중 백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5] 가마쿠라 리빙랩: 전문가 팀과 도구 박스



3)리빙랩 가이드라인/핸드북

- 정리된 핸드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리빙랩 활동의 흐름과 역할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자료와 리빙랩사업 관련 task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리빙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6] 일본 리빙랩 사업 관련 업무 리스트

LivingLabinJapan

2018年4月現在（作成中）

※一般社団法人高齢社会共創センターが把握している
リビングラボを掲載

※●表示のあるところは担当者から情報提供あり。●表示がないところはWEB情報等をもとに記載している
ため事実と異なる可能性がある

No	地域	名称	活動概要	主たる構成メンバー
				※下線は連絡窓口担当者在籍
1	宮城県 仙台市	仙台フィンランド健康福祉センター	仙台フィンランド健康福祉センター（S-FWBC）は仙台とフィンランドのビジネスを促進する非営利プロジェクト。健康福祉分野を中心に新製品・サービスの開発や海外展開をサポート。 http://sendai.fwbc.jp/#	【産】 【学】 【官】 【民】
2	山形県 鶴岡市	鶴岡リビングラボ	経済産業省「binテージ・ソサエティ・プラットフォーム形成事業」の一環として2017年9月より展開。鶴岡リビングラボでは「温泉地×ヘルスケア」が主なテーマ。 http://www.meti.go.jp/press/2017/02/20180209007/20180209007.html	【産】 【学】 【官】 【民】
3	● 茨城県 つくば市	筑波大学CUAR みんラボ (みんなの使いやすさラボ)	「モノの使いやすさ」について、感受性の高い高齢者よりよい製品・システムを提供したい企業者・サービス提供者、さらにそのテーマに関わる研究者の三者が集い、「皆にとって使いやすい社会」を創るラボです。 ※IAUDアワード ソーシャルデザイン部門金賞（2014年） ※フィールドは茨城県県南地区	【産】 みんラボコンソーシアム法人会員 他 【学】 筑波大学（人間系、システム情報系）、 静岡大学 【官】 【民】 みんラボ登録者
4	埼玉県 所沢市	所沢リビングラボ	経済産業省「binテージ・ソサエティ・プラットフォーム形成事業」の一環として2017年9月より展開。所沢リビングラボでは「ニュータウン×起業」が主なテーマ。 http://www.meti.go.jp/press/2017/02/20180209007/20180209007.html	【産】 【学】 【官】 【民】
5	埼玉県 狭山市	狭山リビングラボ	経済産業省「binテージ・ソサエティ・プラットフォーム形成事業」の一環として2017年9月より展開。狭山リビングラボでは「大学×起業」が主なテーマ。 http://www.meti.go.jp/press/2017/02/20180209007/20180209007.html	【産】 【学】 【官】 【民】
6	埼玉県 和光市	ギャップシニア・コンソーシアム	アクティブと要介護状態の狭間にいる高齢者である「ギャップシニア」向けの生活支援サービスの創出を目的とした「ギャップシニア・コンソーシアム」。ギャップシニアの生活課題や、生活を多面的に支えるサービスを官民協働で創出 https://www.jri.co.jp/page.jsp?id=25348	【産】 ダスキン、日本総研 【学】 【官】 【民】
7	千葉県 八千代市	ギャップシニアコンソーシアム	アクティブと要介護状態の狭間にいる高齢者である「ギャップシニア」向けの生活支援サービスの創出を目的とした「ギャップシニア・コンソーシアム」。ギャップシニアの生活課題や、生活を多面的に支えるサービスを官民協働で創出 https://www.jri.co.jp/page.jsp?id=25348	【産】 ハウス食品、日本総研 【学】 【官】 【民】
8	東京都 文京区	リビングラボ本郷	本ラボは、モノゴトを生み出す「研究室」のあり方そのものをプロトタイプできるような、実験の場を目指して設計。 https://peatix.com/event/233214?lang=ja	【産】 【学】 東京大学（稲見・檜山研究室） 【官】 【民】
9	● 東京都 日野市	日野市リビングラボ（仮称）	現在は市内地区で月1回程度、地域課題の共有と参加企業の技術紹介を行うプレリビングラボを開催している。 今後はプロジェクトを組成し開催頻度を高めるとともに、自主的な運営を模索していく。	【産】 富士通研究所 【学】 多摩大学 【官】 日野市 地域戦略室 【民】 自治会等市民
10	神奈川県 川崎市	川崎リビングラボ	経済産業省「binテージ・ソサエティ・プラットフォーム形成事業」の一環として2017年9月より展開。川崎リビングラボでは「介護×イノベーション」が主なテーマ。 http://www.meti.go.jp/press/2017/02/20180209007/20180209007.html	【産】 【学】 【官】 【民】
11	● 神奈川県 横浜市青葉区（たまプラーザ）	WISE Living Lab	横浜市と東急電鉄がたまプラーザをモデル地区に進めている「次世代郊外まちづくり」の活動の一環として、郊外住宅地における課題解決や新たな価値創造のための「たまプラーザ版リビングラボ」実装を目指しています。	【産】 東京急行電鉄 【学】 東京大学 【官】 横浜市 建築局 【民】 合同会社たまプラ・コネクト / 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所
12	神奈川県 横浜市 栄区	栄区版リビングラボ	区民の皆様や企業の皆様とともに、豊かな自然をはじめとした栄区の魅力資源を発掘・活用し、賑わいのあるまちづくりを目指す	【産】 【学】 【官】 栄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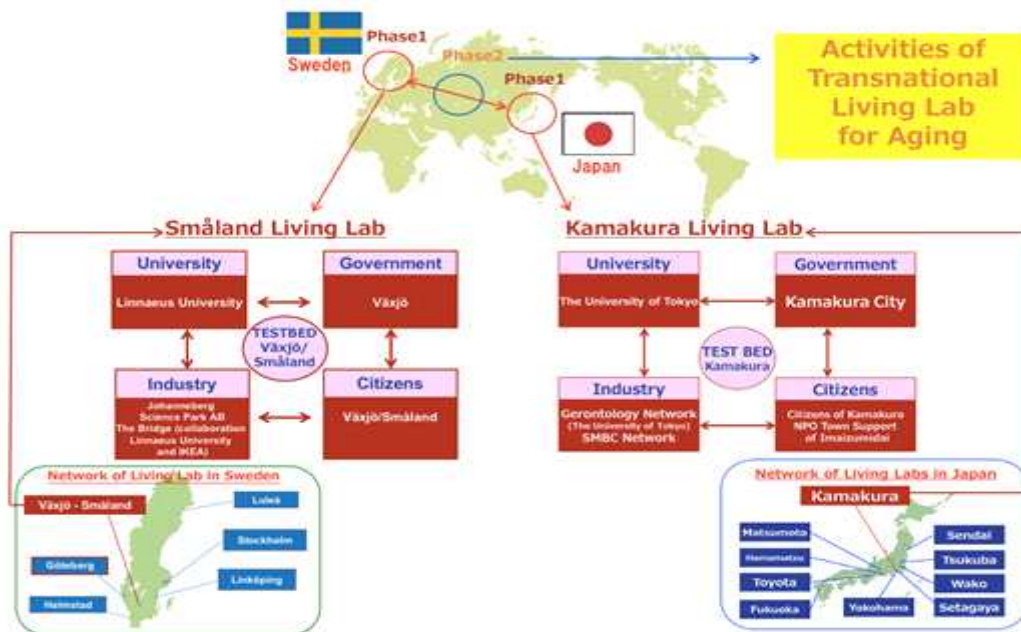
				http://yokohamalab.jp/2017/10/21/sakae_livinglab2/	【民】
13	神奈川県	横浜市戸塚区	戸塚区版リビングラボ	地域社会の課題となっている、育児と介護を同時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ダブルケア」の問題解決などに取組む http://yokohama.localgood.jp/news/6503/	【産】 【学】 【官】 【民】 戸塚区
14	神奈川県	(横浜市中区?)	ともに育むサービスラボ (はぐラボ)	子育てママパパ、企業、デザイナーが、対話を重ねながら、子どもとの生活をより楽しく、快適にするサービスを一緒に創り上げていく(ともに育む)場を提供。参加者全員が、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活かして活動に参加する「共創」を促し、人々に使われ続ける優れたサービスを生み出します。 http://ictdesign.biz/news/20170515/	【産】 NTTテクノ 【学】 ロス(株) 【官】 【民】
15	神奈川県	横浜市中区(井土ヶ谷)	井土ヶ谷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リビングラボファミリー」	井戸ガヤ会議のメンバーを中心に地域住民、企業、クリエイター、NPO・市民活動団体が、社会課題に対して新しいサービスを開発することにより、地域価値の向上、暮らしの再生を行う共創型のプロジェクト。 http://yokohama.localgood.jp/event/11478/	【産】 (株)太陽住建 【学】 【官】 【民】
16	神奈川県	横浜市旭区	みなまきラボ	週替りで運営パートナーである様々なクリエイターや大学生らによって、まちを楽しむための様々な試みを展開。時にはみなまきラボの中に留まらず駅前広場やまち全体を舞台にイベントやワークショップも行っていく。活動を通して、みんなで一緒に新しい地域の魅力をつくりだしていくことを目指していく。 http://minamakilab.yokohama/	【産】 相鉄ホールディングス(株) 【学】 横浜国立大学フェリス学院大学 【官】 【民】 横浜市
17	● 神奈川県	横浜市中区	男性のわが町プロジェクト	港南台協会の開催しているセカンドライフ大学の卒業生・在校生を核とし、まちの主役である住民(特に男性)が、地域のことを考え活動することで、地域、住民、企業等の問題を解決に導き、地域力をアップする	【産】 ジェロントロジー・デザインラボ 【学】 (株)ビデオリサーチ、タイエー港南台店 【学】 桜美林大学 【学】 老年学総合研究所 【官】 港南区社会福祉協議会 【民】 港南区住民
18	神奈川県	横浜市	横浜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ラボ	地域の価値ある人・団体・拠点・プロジェクト等の地域資源について常にリサーチし、広く市民が地域資源の所在を知り、「つながり」をつくっていくためのきっかけづくりに取り組んでいる。 http://yokohamalab.jp/about/aboutus/	【産】 【学】 【官】 【民】
19	神奈川県	鎌倉市	鎌倉リビングラボ	長寿社会に必要な新しい価値を"民産官学"のメンバーで共創。住民、自治体、企業、それぞれが有する課題やニーズに応える各種プロジェクトを展開。さらにスウェーデンと連携し、国際連携型リビングラボの創設を目指す	【産】 高齢社会共創センター法学会員、SMBCグループ 【学】 高齢社会共創センター、東京大学I 【官】 鎌倉市役所 【民】 今泉台町内会、NPO法人タウンサポート鎌倉今泉台
20	神奈川県	伊勢原市	神奈川県「ME-BYOリビングラボ」	県民の皆様がより安心して未病改善の実践に取り組めるよう設置。ウォーキングアプリを活用して歩く生活習慣を実践し、歩数の計測や、行動変容ステージの把握、自己効力感の測定などを行う。この実証を通じて、個人が継続的に運動を行えるよう心理に働き掛け、行動変容を促すための方法を検証する。 http://www.pref.kanagawa.jp/prs/p1188857.html	【産】 (株)マビオン 【学】 東海大学 【官】 伊勢原市、神奈川県 【民】
21	神奈川県	三浦市	三浦Living Laboratory	三浦をシルバー産業育成のためのリサーチタウンとして整備をし、街全体を「地域共創型の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活用するプロジェクト」として展開。 http://www.kuhs.ac.jp/livinglabo/	【産】 神奈川県産業技術センター、よこはまTLO(株) 【学】 神奈川県立保健福祉大学 【官】 三浦市 【民】 三浦市立病院、三浦市社会福祉協議会
22	● 静岡県	静岡市	静岡アクティブシニアラボ	静岡アクティブシニアラボは、製品・サービスの開発過程に対して企画段階から評価まで一般的な消費者・市民であるユーザが積極的に参加し、消費者・市民・開発側・研究者が協働したユーザ中心設計を実施するLiving Lab (リビングラボ)を目指します。	【産】 その都度参加 【学】 静岡大学 【学】 大学教育センター 【官】 【民】 静岡市在住の65歳以上のアクティブシニア
23	長野県	松本市	松本ヘルス・ラボ	松本市は「健康寿命延伸都市・松本」を掲げ、市民の健康づくりとともに社会的課題の解決による産業創出を目指してきた。「松本ヘルス・ラボ」は企業と「健康づくりのソリューション創りに参加したい!」「いつまでも健康でいたい!」という思いの市民の皆様を結ぶ、健康づくりと産業創出の両面を実現を目指す https://m-health-lab.jp/	【産】 松本商工会議所 【学】 【官】 松本市、長野県 【民】 市民
24	大阪府	高石市	高石健幸リビング	元気高齢者を中心とした高石市在住の方に、専門知識や知見を活かして幅広く活躍いただく	【産】 【学】

		グ・ラボ	ことを目的として、人材の確保を希望する企業からの紹介依頼に対し人材情報を提供する高石人材バンクを設置など https://www.takaishi-kenkou.jp/	【官】 高石市
25	大阪府	ウェルネスオープンリビングラボ	健康科学関連の課題に応じた知の創出、開発、実証あるいはコンサルティングを推進することにより、大学、企業、行政、住民等が連携し、モノやサービス、行政施策等を共創していく http://wooll.co.jp/concept/	【産】 合同会社ウェルネスオープンリビングラボ 【学】 大阪市立大学 【官】 【民】
26	大阪府	関西大学リビングラボ（仮・準備段階）	（構想中）	【産】 【学】 【官】 【民】
27	大阪府 （大阪市？）	子育てママリビングラボ	子育てママパパ、企業、デザイナーが、対話を重ねながら、子どもとの生活をより楽しく、快適にするサービスを一緒に創り上げていく（ともに育む）場を提供。参加者全員が、それぞれの得意分野を活かして活動に参加する「共創」を促し、人々に使われ続ける優れたサービスを生み出す。	【産】 ソーシャルビジネスデザイン研究所 【学】 【官】 【民】
28	● 兵庫県	三木市緑が丘リビングラボ（仮称）	※非公開	※非公開
29	● 徳島県	徳島リビングラボ	※非公開	※非公開
30	福岡県	福岡市 おたがいさまコミュニティ	地域それぞれの事業・特性を踏まえ、地域の資源を統合したまちづくりを展開（機能統合型コミュニティ形成）	【産】 【学】 【官】 【民】
31	福岡県	福岡リビングラボ	市民、企業、行政、NPOなどの様々な立ち位置の方が参加し、それぞれの視点と価値を持ち寄りながら、生活に潜む課題を発掘し、アイデアを創造し、そして事業化に向けてプロトタイピング（試作品づくり）を行う http://www.fukuoka-dc.jp.com/?p=18872	【産】 福岡地域戦略推進協議会(FDC) 【学】 【官】 【民】
32	● 福岡県	大牟田地域密着型リビングラボ	パーソンセンタードに基づいた福産連携（住民・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企業）による持続的共創を生む地域密着型リビングラボを開始。企業のサービス創出の視点に加えて、地域福祉の視点にも重点を置くことで、地域と企業の持続的共創の可能な活動を行います。 ※フィールドは、パーソンセンタードケアという概念を中心に活動している認知症ライフサポート研究会や大牟田市の福祉の現場（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介護事業者の施設、住民の介護予防拠点等に活用されている地域交流サロン等）	【産】 NTT西日本 【学】 NTTサービスエボリューション研究所 【官】 大牟田市役所 【民】 認知症ライフサポート研究会

4) 스웨덴과의 공동연구사업

- 활력있는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 연계형 리빙랩 진행(Transnational Living Lab for Aging)
- 이노베이션(지역과제해결, 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웨덴과 일본이 유럽과 아시아의 원도우로 고령자시장의 세계적 활성화 기대

[그림 7] 일본-스웨덴 간 Transnational Living Lab for Aging 사업



5)기타

- FCAJ와 도쿄대의 리빙랩 네트워크의 차이는?
- FCAJ는 좀 더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지향하는 형태이고 도쿄대에서 추진하는 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는 않지만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음. 양쪽이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음

□ 가마쿠라 리빙랩 진행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인터뷰

- 요시다 료코(YOSHIDA Ryoko), 학술지원전문직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도쿄대)
- 나가시마 요스케(NAGASHIMA Yosuke) 협력연구원,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도쿄대)
- 방문일시: 2018년11월27일 화요일 10시
- 요시다 료코와 나가시마 요스케는 가마쿠라 리빙랩 관련 실질적인 코디네이터로서 구체적인 리빙랩 진행 과정과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진 2] 회의 후 요시다 료코와 나가시마 요스케와의 사진



※ 왼쪽부터 하라구치 나오코 (큐슈 경제연구원), 서정주 (Eisai), 성지은 (STEPI), 요시다 료코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직원), 나가시마 요스케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연구원)

○ 가마쿠라 리빙랩 (이마이즈미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1. 개요

- 가마쿠라 리빙랩은 가마쿠라시에서도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이마이즈미다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마이즈미다이 지역은 인구 5086명, 2025세대, 고령화율 45.1%, 75세 이상은 28.8%(2017년6월 자료)로 시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 이 지역은 40-50년 전에 한꺼번에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온 뉴타운으로 고령화도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버스는 있지만 역에서 마을까지 언덕이 많고 거리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편이고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바라는 분위기도 있어서 요코하마 대학의 학생 등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센터 중심 활동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역 회관, 빈집 리모델링, 살롱이나 절 등의 참여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2. 조직화된 생활자인 NPO 역할

- 빈집문제, 교통, 고령화 등 지역문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타운서포트 가마쿠라 이다이즈미다이(TSKI)라는 NPO가 만들어져 있었다.
- 활발하게 활동하는 핵심 주민 주체가 존재하고 있어서 산관학민이 협력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고 2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주요 요소였다.
- TSKI는 2015년7월에 설립해서 처음부터 파트너십이 가능했다.

3. 예산지원

- JTS 산하에 사회문제 해결 연구 활동을 하는 리스텍스가 있고 가마쿠라 리빙랩의 리스텍스와 상위기관인 JTS의 지원금(스웨덴과의 국제 리빙랩 프로젝트는 JTS 국제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리스텍스는 고령사회 문제를 커뮤니티 베이스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키야마 선생님이 리더이다.
- 그 프로젝트의 사무국 역할을 요시다와 나가시마가 하고 있고 약 2년 전에 리빙랩의 노하우와 지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리스텍스의 투자를 받고 고령사회공동창출센터를 설립하였다.
- 고령사회공창센터는 정보제공/인재육성/네트워크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리빙랩이다.

4. 고령사회공창센터와 리빙랩 네트워크

- 고령사회공창센터는 지난 4월 리빙랩 네트워크 회의를 주최했고 내년 3월에 제 2차 네트워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향후에도 연 1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FCAJ나 정부의 움직임도 있어서 센터가 모든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섹터와 잘 공유해서 원만하게 협력하려고 한다.

5. 섹터별 역할

- 아키야마 선생님은 사회를 실제로 바꾸려면 산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협력모델로서 리빙랩을 생각
- 주민이 조직화되어 있고 명확한 지역 과제가 있는 이마이즈미다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조인할 수 있도록 연결하였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디자인하였다.
- NPO는 현장 코디네이터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참가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필요에 따라 해당 주제에 적합한(모빌리티의 이슈가 있는, 면허가 중지되는 등) 참가자를 선별해서 모집했다.

6. 시작

- 2017년 1월에 본격 시작했다. 2000세대에 리빙랩에 대한 전단지를 돌리고 오프닝 이벤트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오프닝 이벤트에서는 최신 모빌리티, 휴먼 서포트 로봇 체험과 리빙랩에 대한 기본 설명을 진행했다.
- 약 100명이 참가했고 그 중에는 시니어가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무얼 하려고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하는 반응이었다. 언론에서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으로서 리빙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리빙랩에서도 전략적으로 많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는데, 마침 스웨덴 국왕 부부의 방문도 있고 해서 미디어 취재가 병행되었다.

[그림 8] 가라쿠라 리빙랩 포스터와 추진 현황 사진



7. 기업참여

- 센터는 많은 기업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가구회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민들은 자신들도 개발자라는 생각을 가졌다. 금융/보험/가구 메이커 등이 참여했다.
-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가설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가설이 뒤집어 지는 것을 경험했고 고객의 목소리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 인생 100세 장수사회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하우징, 모빌리티, 워크(텔레워크) 등이 있었다.
- 벨기에의 경우 의약품 패키지 사업을 일본 등 아시아에서 추진하기 위해 유럽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아시아에서도 적용가능할지를 테스트 해보기도 했다.

8. 참가자 보상

- 좌담회 참가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를 제공했다. 자원봉사가 아니라, 생활자프로(생활전문가)로서 사례를 했고 참여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9. 성과/결과

- 시제품 테스트 때 참가자들은 매우 기뻐했고 박수를 칠만큼 만족도가 매우 좋았다.

10. 기타 제안/질문

- 한국-일본 간 리빙랩 공동 워크숍을 진행해 보고 싶음(한일 공동사례)
- 2018년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150명 이상 참석
- International이 아니라 Transnational LL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 국가 간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국

가를 넘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

- 리빙랩 가이드라인 관련 특히, 가구 개발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정리할 계획이 있음(요시다)
- 가마쿠라 모델로 리빙랩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를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 있음(요시다)

□ 리빙랩 네트워크 및 코디네이터 관련 인터뷰

- 무라타 히로노부 (Hironobu Murata)
 - Firm α Co.,Ltd.(<http://www.firm-alpha.co.jp/en>)
 - Future Center Alliance Japan (FCAJ), Managing Director & Secretary General(<http://www.futurecenteralliance-japan.org/en>)
- 다카야마 치히로 (Takayama Chihiro)
 - Group Officer Executive Director, Eisai Co.,Ltd. Knowledge Creation
- 카마타 리사 (Risa Kamata)
 - Deputy Executive Director, Eisai Co., Ltd. Knowledge Creation
- 만남장소 및 일시: 도쿄대, 2018년 11월27일 11:30

[사진 3] 회의 후 무라타, 다카야마, 카마타씨와의 사진



※ 왼쪽부터 서정주 (Eisai), 무라타 히로노부 (FCAJ), 다카야마 치히로 (Eisai), 성지은 (STEPI), 카마타 리사 (Eisai), 하라구치 나오코 (큐슈 경제연구원)

1. FCAJ 역할 및 활동

- FCAJ는 FCAJ의 이사인 아키야마 선생님과 콜라보해서 카마쿠라 리빙랩 서포트. FCAJ로서 직접 리빙랩을 하는 것보다 에자이나 UR(일반 르네상스: 부동산 기업) 같은 멤버기업들이 리빙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오래된 단지들을 고령자가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손이 단지로 찾아가는 편의점을 운영하게 하는 등
 - 1) 작년 경제산업성과 빈티지/ 성숙해 가는 도시 실험 진행. 야마가타현. 츠루오카시 온천 지역. 온천 여관. 온천에서 고령자가 근무하거나 고령자 웰빙을 추구하는 프로젝트. 일을 하게 한 후 얼마나 체력이 좋아졌는지 확인 하는 등의 활동. FCAJ로서 현재 추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초반에 기획과 연결에 참여해서 프로젝트를 함께 킥오프함
- 2)도쿄로자와시. 시니어가 젊은 사람이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장’ 마련. 시니어의 경험과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 세대 간 코워킹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기획. 대학, 농장이 있어서 관련 활동 기획 가능.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고령자 노하우도가 있어서 더 적합
- 3)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 널싱케어홈. 개호시설로 노노개호로 입주자를 케어. 일하는 노인 연령 75-80세. 본인과 가족들의 허락을 사전에 구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입주자의 행동을 비디오 촬영 (방도 포함해서). 침대/화장실의 활용 등이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제품개발에 인사이트. 또한 개호시설은 종이로 관리하는 등 운영이 옛날 방식으로 비효율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회사가 참여해서 관리 시스템 개발
- FCAJ는 코디네이터보다는 플래너 역할. 리빙랩의 메인롤의 지역주민, 각 지역의 키맨이 코디네이터이고 본인은 지원하는 역할

- FCAJ는 각 섹터의 연결을 지원하고 리빙랩을 서포트. 멤버십 운영. 약 40개 기업/정부/연구소(JAXA)/NPO 회원(멤버십은 60만엔: 한화 약 600만원). 정부 참여시는 프로젝트 별로 기간+맨파워에 따라 금액 책정
- NPO는 1군데 정도 정식 멤버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통상은 프로젝트 별로 다른 NPO가 참여. FCAJ는 더 많은 NPO와 같이 하고 싶음
- 공공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내각부, 환경부 등이 참여 - 특히 Cool Japan의 일환으로 리빙랩 관련 지적재산관리,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 중. 일본은 기업의 지적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잘 발굴 활용하면서 여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시작해 갈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함
- 그 동안 기업은 혁신을 연구소에서 했지만. 이제는 연구소에서만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시민과의 코크리에이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리빙랩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어프로치이다.

2. 멤버십

- 매월 정기 워크숍. 멤버 기업이 정한 테마로 약 70-80명이 참석, 그룹을 나눠서 워크숍 진행. 협력 계기가 되기도 하고. 평소 생각하지 않는 테마를 같이 생각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기도 함. 인재육성 차원에서 진행. 서로 논의하면서 자극 받고 성장. 각 기업에서도 ‘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의 운영관련 노하우 교류가 가능

3. 에자이

- 리빙랩은 주민과 시간을 보내는 Socialization 활동이 매우 중요. 기업이 주민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으로 키워드는 공동선(Common Good).

- 또한 리빙랩은 실천이 중요. 실천은 주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고령화나 치매 관련 리빙랩을 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음. 공감
- 리빙랩에서도 지식창조이론이 주요하게 적용된다.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대가로 헨리 체스브로, 노나카, 데이비드 켈리를 들 수 있는데 데이비드 켈리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도 지식창조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예자이에서는 얼마 전에도 말기 전이성 유방암 환자와 공감활동을 했고 그러한 것을 반복해 가고 있다. 이번 주말도 노인들과 치매돌봄에 관한 Socialization 활동 진행 예정.
- 리빙랩은 주민이나 환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 요코하마 리빙랩의 경우는 NPO를 만들고 행정의 비용을 지원해 줘서 열심히 했는데 과제를 해결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의미있는 과정이었음. 기업의 참가가 있으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서 해결이 가능하다.

□ 2018년 제4회 리빙랩 연구교류회

○ 자동차기술회 디자인 부문 위원회 콜라보 기획

○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14:00-19:00

1부

14:00-14:45 강연 ‘장수사회의과제와 리빙랩의 가능성’, 아키야마 히로코
Hiroko Akiyama (고령사회공창센터장, 도쿄대학교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특임교수)

2부 초고령미래의 이동과 라이프스타일

15:00-16:00 특별강연 ‘자동운전의 현황과 전망’, 카마타 미노루 (도쿄대학
대학원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인간환경학전공교수, 동쿄대학교고령사회종합연구
기구 초대기구장)

16:00-16:15 자동차기술회 디자인부회 활동소개

16:15-17:15 패널디스커션

17:15-17:20 사무연락

종료 후 교류회

[사진 4] 제4회 리빙랩 연구교류회 포스터



自動車技術会デザイン部門委員会コラボレーション企画
2018年第4回リビングラボ研究交流会

2018年11月27日(火) 14:00~17:20
東京大学本郷キャンパス鉄門記念講堂

高齢社会共創センター
Co-Creation Center for Active Aging

プログラム

■第1部※初参加の方向け

14:00-14:45 講演「長寿社会の課題とリビングラボの可能性」
秋山弘子先生(高齢社会共創センター長、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特任教授)

■第2部『超高齢未来の移動とライフスタイル』

15:00-16:00 特別講演「自動運転の現状と展望」
鎌田実先生(東京大学大学院新領域創成科学研究科人間環境学専攻教授、
東京大学高齢社会総合研究機構 初代機構長)

16:00-16:15 自動車技術会デザイン部会の活動紹介

16:15-17:15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17:15-17:20 事務連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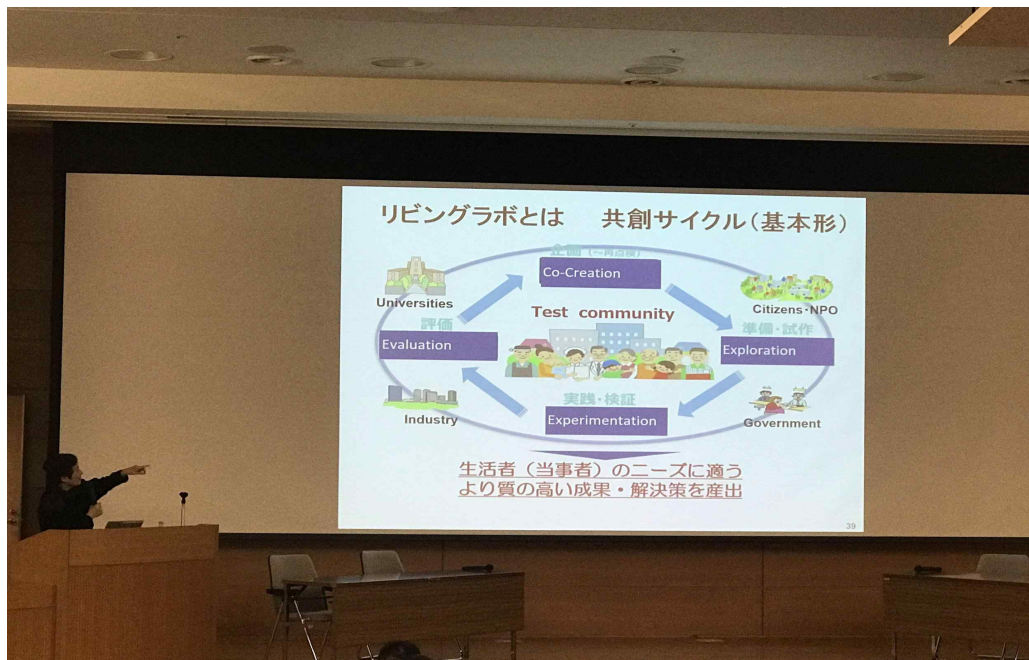
★終了後、当ビル13階レストラン「Capo PELLICANO(カポ・ペリカーノ)本郷店」にて懇親会開催いたします。
当日参加枠少しだけございます!スタッフまでお気軽にお声がけください。

[사진 5] 제4회 리빙랩 연구교류회 사진



- ‘장수사회의 과제와 리빙랩의 가능성’ ,
- 아키야마 히로코 Hiroko Akiyama : 고령사회공창센터장, 도쿄대학 고령사회종합연구기구 특임교수

[사진 6] 아키야마 발표 사진



- 고령화 관련해서 개인, 사회, 산업 레벨에서는 주제로 리빙랩을 진행한다.
개인의 장수화와 관련된 이슈, 사회적 차원에서는 장수사회 마을만들기
그리고 산업에서는 글로벌에이징 관련 주제를 다룬다.
 - 인생이 2배가 되었고 개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 자신이
조각해가고 있다. 이모작, 다모작 인생이다. 그래서 장수사회의 과제는
다양한 인생설계이다.
 - 우리 사회는 고령자가 고령자 5%였던 시대의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다. 교육/고용/의료/돌봄 등의 시스템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산업에서 또한 장수사회의 대응을 위한 사업과 시장이 커져 가고 있다.
산업계는 장수사회에 필요한 제품/서비스/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한다.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고 특히 아시아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1992에 75세를 2002년에는 64세로 볼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고령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30 12년 후 5명 중 1명
치매고, 혼자 사는 고령자 수가 늘고 있다.
- (생활)자립도에 변화패턴이 있다. 70대 이후 자립화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 뭘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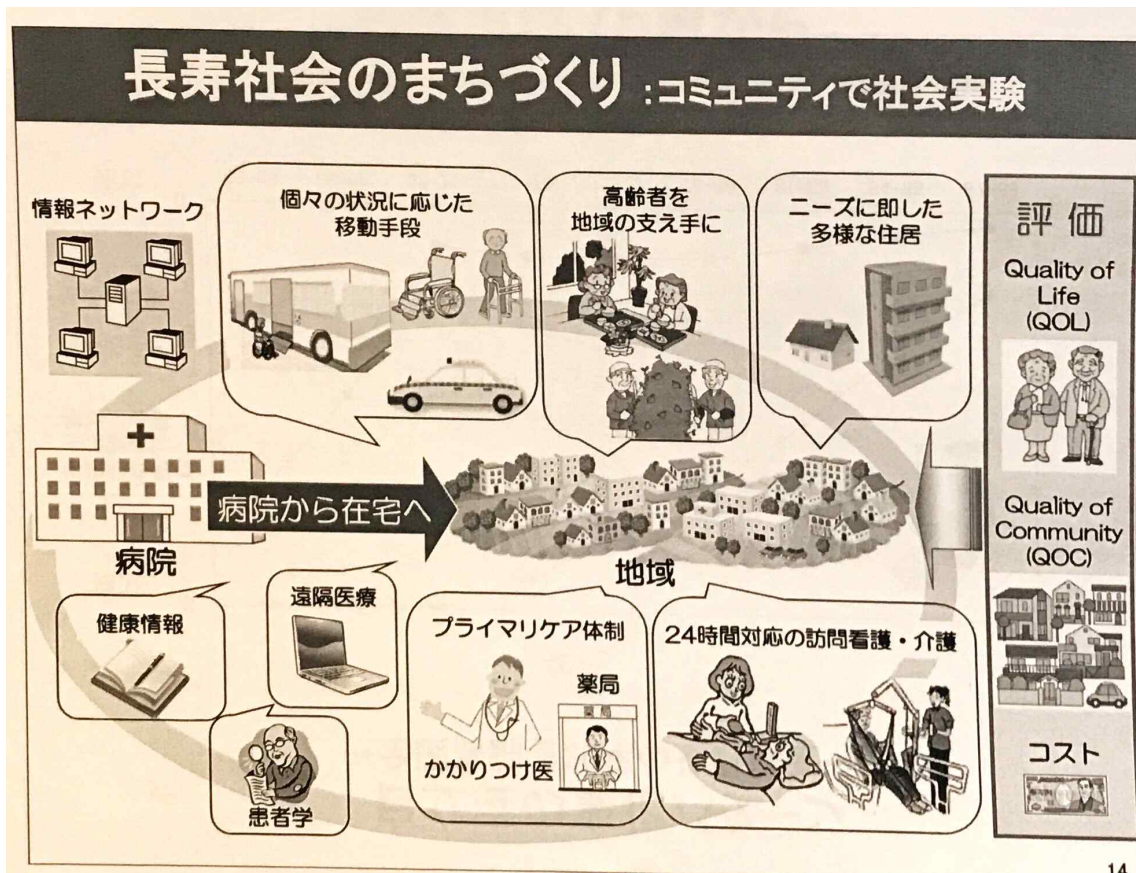
-자립기간(건강수명) 연장

-살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생활환경 정비

-사람 연결 만들기

○ 병원에서 주택(지역)으로

- 정보네트워크 - 개별 상황에 맞는 이동 수단, 지역에서 고령자 지원 손길-
니즈에 맞춘 다양한 주거 형태 -24시간 대응 방문간호/개호- 프라이머리
케어 체제 (주치의/약국): 원격의료, 환자학(환자교육), 건강정보
- 평가: Quality of Life / Quality of Community / Cost



14

○ 마을 만들기의 주요 영역

- 취업/노동, 사회참가, 삶의 보람
- 생애학습(평생학습)
- 사람연결
- 허약예방
- 포괄적 의료, 개호시스템
- 주택
- 이동수단
- 정보시스템

○ 후쿠이와 카시마에서 장수사회 마을만들기 실험 중

- Aging in Place: 살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자기답게 나이 들어가는 것. 지금까지의 생활을 10년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게

○ 주택케어시스템/서비스형 고령자주택 /지역포괄케어시스템

- 고령자가 활용하기 쉬운 모빌리티 / 테크놀로지(IoT)로 건강·안심

-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필요 (행정/기업/시민/대학)

○ 풍요로운 장수에 공헌하는 고령자 시장과 니즈:

-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의료, 개호, 복지서비스 중심)
- 보통 시니어
- 부자 시니어 (새로운 니즈가 있는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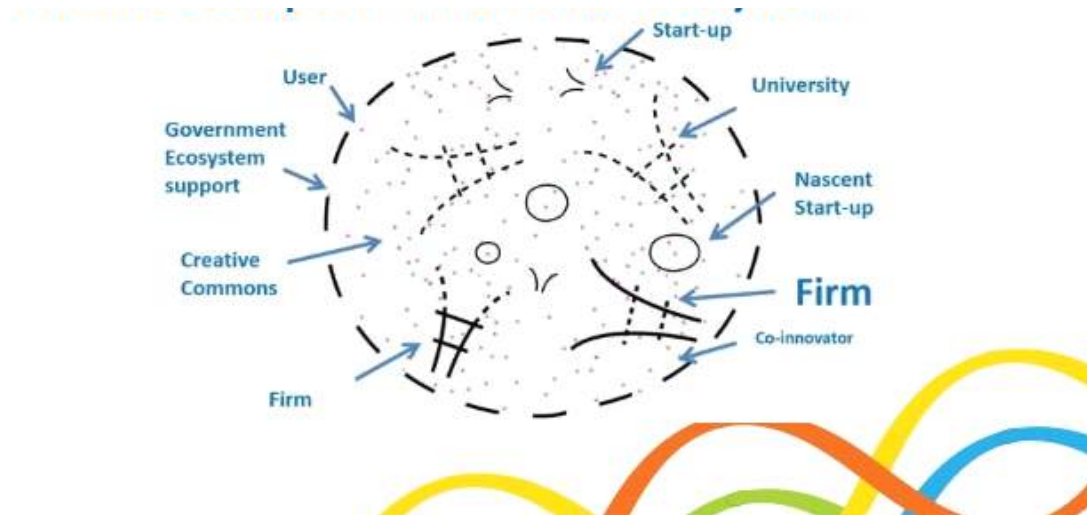
○ 장수사회의 과제와 가능성: 개인의 장수화, 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사회는 이노베이션의 보고

○ closed innovation -> open innovation -> innovation networks / ecosystems



Sources: Open Innovation Yearbook 2016-European Commission

○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지향



○ 가마쿠라 리빙랩 활동

- A-C 세 가지 타입으로 작년 1월 시작
- 일본의 리빙랩 모델 및 비즈니스 모델 확인
- 주민- 주민과제: 육아/시니어/ 세대별로 나눠서 워크숍. 젊은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다는 과제
- 이상적인 커뮤니티 만들기. 교통 접근성. 데이터 분석툴 개발. 텔레워크 커뮤니티
- 가까운 곳에 원격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할 수 있는. 새틀라이트 오피스.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이토키 참여. 주택/IT 기업 참여
- 상자로 목업을 만들고 주민이 프로토타입 시연회 진행 : 오픈랩 데이

○ 유저 시점에서의 평가 진행. 어떤 체크포인트로 평가할 것인가

○ 스웨덴 국제교류형 리빙랩

- 인구면에서는 일본이 고령화 먼저 경험. 사회가 달라서 해결방법이 다름

○ 스웨덴에서 생산 제품/서비스를 아시아 시장 진출 시도

- 일본에서 고령사회 해결책을 만든 것을 스웨덴에서 철저하게 테스트 해서

유럽시장에 출시

- 공동테마: 취업/주거/이동수단/고독
- homepage도 3개 국어로 구축
- 합동 대학원 과정 Innovation through business engineering & Design
- SDGs - 산학관민/국가간 파트너십. 리빙랩은 진정한 SDGs임
- 세미나 후 연회

[사진 7] 연구교류회 후 네트워킹 사진 1



[사진 8] 연구교류회 후 네트워킹 사진 2



1. 리빙랩 코디네이터로서 아키야마 아키코(도쿄대)

아키야마 교수는 일리노이에서 사회심리를 전공한 마을만들기 전문가로 일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미국에서 연구활동하는 그녀를 적극적으로 일본으로 초청해서 고령사회 코크리에이션 센터를 설립했다고 한다. 75세의 연세에도 전문가로서 너무나 명쾌하고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에 대해 고무적인 태도로 일행을 반겨주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리빙랩 관련 최고 전문가로 존경받고 있는 것 같았다.

<http://www.cc-aa.or.jp> Co-Creation Center for Active Aging

[사진 9] 일본 리빙랩 코디네이터 아키야마 선생님과 사진



※ 왼쪽부터 하라구치 나오코 (큐슈 경제연구원), 아키야마 아키코 (도쿄대), 성지은 (STEPI), 서정주 (Eisai)

2. 가구회사 이토키

- 이토키에서 적극적으로 리빙랩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와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제법 길게 이야기 나눴다. 그동안은 비즈니스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많이 제공하는 등의 양으로 승부했지만 미래의 고령/장수사회는 경제 활동과 자원이 제한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되고 SDGs를 지향하면서 산학관민이 협력하여 코크리에이션 하는 리빙랩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리빙랩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자신이 제품 개발자로 참여한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회사에서는 미리 예상했던 사전 가설들이 뒤집어지고, 기획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활용에 대해 사용자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제품개발과 비즈니스에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이토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을만들기와 리빙랩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한다. 우리도 산학관민 협력과 사용자 중심 코크리에이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미래

사회에 대응에 가는 일본의 지혜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https://www.itoki.jp/special/imagine2025/satellite/>

[사진 10] 이토키 기업과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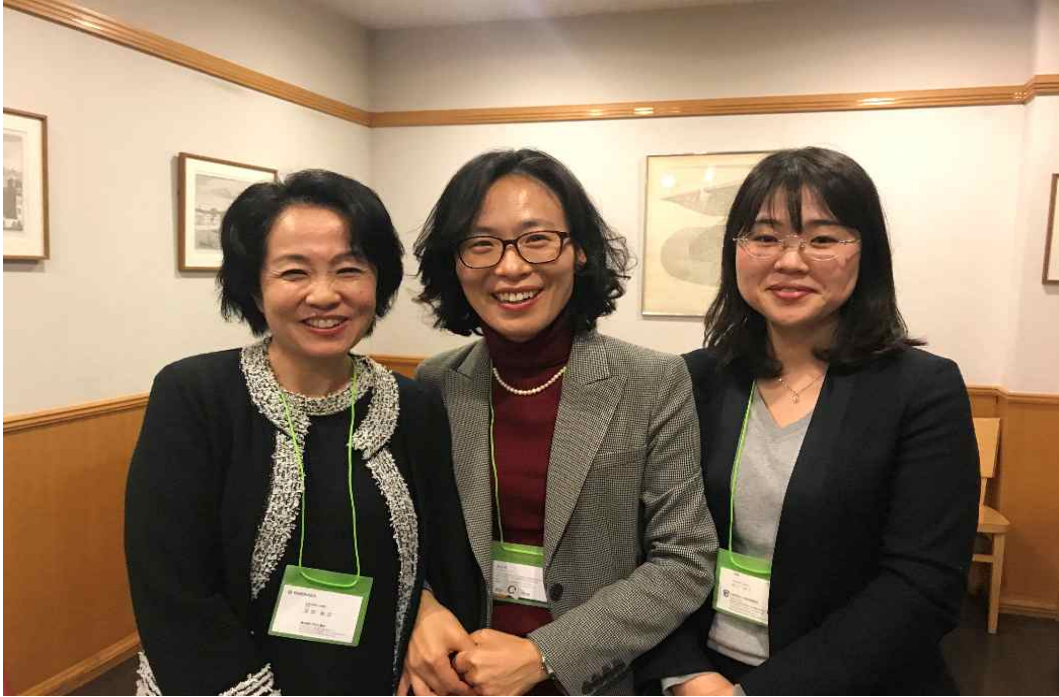


※ 왼쪽부터 하라구치 나오코 (큐슈 경제연구원), 성지은 (STEPI), 서정주 (Eisai), 하라 타카아키 (CSR추진부, 이토키), 마사키 쿠즈야 (윙크스타일 연구소 연구원 / 상품개발본부, 이토키)

3. 그외 기업

- 도쿄 돔, 후쿠오카 돔을 건설한 타게나카 건설사, 코니카 미놀타(KONICA MINOLTA), HITACHI사들도 참여. 이날 연구교류회에는 미츠비시 등 사자 동차업계 전반이 참석. 기업들이 리빙랩 활동에 적극적인 것은 주목할 사항으로 보임

[사진 11] 타케나카 건설 주임과의 사진



※ 왼쪽부터 누마타 히로에 타케나카(TAKEMNAKA 경영기획실 기획부 주임), 성지은 (STEPI), 하라구치 나오키 (큐슈 경제연구원)